

# 인격성과 도덕적 지위(Personhood and Moral Status)

- 칸트의 윤리설을 중심으로 -

이장형\*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인격성과 유전적 인간성
3. 칸트 윤리설의 인격 개념
4. 칸트의 인격 개념에 대한 비판
5. 맺는 말

Bibliography

Abstract

## 1. 들어가는 말

도덕적 지위<sup>1)</sup>의 기준에 관한 논의에서, 비교적 폭넓은 지지를 받는 기준은 인격성에 관한 것이다. ‘인격’이란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적 책임이나 지위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개념이다. 이 말은 사람의 품격이나 자격을 가리키는 말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된다. 심리학에서 개인의 지, 정, 의 및 육체적 측면을 총괄하는 전체적 통일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며, 윤리학에서는 “개개의 경험에 의한 그때 그때의 의식의 연속이 아니라, 자아로서 통일성을 갖고 자기 결정적인 것으로서 자율적인 의지를 갖는 것이다.”<sup>2)</sup>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본교 인문대 강사

1) ‘status’는 우리말로 지위, 신분, 상태 등 여러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윤리학적 논의에 있어서는 도덕적으로 고려하거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기에 ‘지위’라고 번역하였다.

2) 항목 ‘인격’ 『철학사전』(서울: 중원문화, 1989) 참조

실제로 인격성이란 말은 인격이 되는 것과 완전한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 사이의 개념적 연관으로 인해서 생명, 유정성 등과 함께 그 정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의 여지가 있다.

미카엘 툴리(Michael Tooley)등은 인격이란 말은 어떤 면에서는 단순히 존칭어로서, 해당 주체가 '특별한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음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이렇게 보면 "인격이다"라는 주장에는 "강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 함축될 뿐 생명, 합리성, 유정성 등 어떤 성질이나 서술적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미카엘 툴리는 "X가 인격이다."라는 문장은 "X가 생명에 대한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has a moral right to life)"와 같다고 보았다.<sup>3)</sup> 그러나 어떤 특별한 주체를 인격으로 간주하려는 인간의 의지는 도덕적 지위에 관한 선행적(prior) 믿음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인간의 '도덕적 지위'와 밀접히 관련된다<sup>4)</sup> 이제 인격성에 관한 칸트 등의 논의를 '도덕적 지위'의 부여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인격성과 유전적 인간성

인격의 개념은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도 중요한 개념이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당시에 철학적으로 중요성을 갖지 않았던 '인격'이란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고 신과 인간 존재에 대한 파악을 시도하였다. 터툴리안(Tertullian)<sup>5)</sup>은 인격 개념을 기독교 신학에 도입하여 삼위일체론적 신관과 기독교론을 설명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는 인격에 해당되는 라틴어 '페르소나'(persona)에 신학적 의미를 부여한 장본인으로 평가된다."<sup>6)</sup> 당시에 법률 용어였던 페르소나는 법정에 출정하지 않는 피소자(被訴者)를 대리하여 대신 판결을 받게되는 인물을 지칭하는 말인데, 터툴리안은 이를 유비적으로 사용하여 역사 속에서 여러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신의 존재를 설명하는데 이용한 것이다. 그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하나의 실체이면서 세 페르소나"(una substantia -tres personae)라는 유명한 표현을 하였던 것이다. 이

3) Michael Tooley 'Abortion and Infanticide'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2(Fall 1972), pp 37-56

4) Mary Anne Warren, *Moral Status* (Oxford Clarendon Press, 1977), p 92

5) 160경 -225 경 생존했던 아프리카 교부 문학과 수사학을 공부했고 법률가로도 활동했다 그가 199년 경에 집필한 '호교론'에 관한 저술은 미신을 배격하고 기독교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에 변증하면서 기독교가 국가에 위협 요소가 되지 않음을 변증하고 있어서 2세기 말 기독교 변증론의 진수로 꼽히고 있다.

6) 심상태, 『인간』 (서울:서광사, 1989), p 111

를 통해 인격의 개념이 기독교 신론에서 중요한 자리 매김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격’을 뜻하는 라틴어 ‘페르소나’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임”이라는 말에서부터 유래한다고도 하고 “통해서 소리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동사에서 유래한다고 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언급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도 언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격’을 가리키는 라틴어 ‘페르소나’는 희랍어 ‘프로소폰’(prosophone)에서 번역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단어는 연극 배우가 극중에 사용하는 가면이자 그가 담당하는 역할을 뜻하는 용어였다. 그런데 구약성서가 히브리어에서 희랍어로 번역되면서 이 용어가 사용되었다. 역사 속에서 신이 활동하는 모습을 다양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신약성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모습을 설명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7)</sup> 그런데 터틀리안이 ‘인격’이란 용어를 신의 활동을 설명하는데 활용하기 시작하기는 했지만, 하나의 실체이면서 세 개의 위격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정착된 것은 아니다. 삼위일체의 개념은 기독교 교리 논쟁에 있어 상당히 오랜기간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sup>8)</sup> 심상태 교수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 정식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다. 이 사유 단계에서 ‘인격’의 개념은 하느님의 실재를 규정하는 데서 하나의 신적 본성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구별성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성을 규정하는 데서 이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적 본성과 인간적 본성이 구별되는 중에서도 위격적으로는 일치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sup>9)</sup>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는 인격의 실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관계’의 개념을 이용하였다. 그는 신에게 있는 세 위격은 본질적으로 세 개의 관계들이라고 이해하였다. 즉 세 위격이 나란히 함께 하는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라고 이해하였던 것이다. 관계로서의 인격이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에 참가되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 인격체 자체라는 것이다.<sup>10)</sup> 이렇게 보는 경우 인격체는 본질상 관계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실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관계로서 행동하는 인격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세기 신학자 빅토르의 리차드(Richard von Victor)는 “위격은 지성적 본성의 직접적 실

7) 신약성서 마태 17.2, 누가 9.29 참조.

8)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며 그 각각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되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교리이다. 한 본질 안에서 세 위격을 갖는다는 것으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논쟁 등을 거치면서 325년 니케아공의회를 통해 기독교에서 공식적인 교리로 자리를 잡았다.

9) 심상태, *op.cit.*, p 112

10) *Ibid.*, p 115

존이다"라고 하여 고정 불변하는 실체가 아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을 항상 새롭게 성취해가는 '실존'으로 파악한 이래로, 현대 실존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관계'의 개념은 인격의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철학사 속에서는 인격주의(personalism)라는 표제 하에 인격적 실체를 인간에 관한 철학적 해석의 실마리로 삼은 견해가 많이 있다. 특히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대륙에는 '새로운 대화적 사상'이라고 하여 인격의 중요성과 의의가 강조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의 대표자들이 마르틴 부버와 페르디난트 에브너와 프란츠 로첸츠바이크였다. 지금까지의 역사적, 실존적, 형이상학적 사상들에 의하여 새로이 나타나게 된 이 대화적 사상은 고전적인 형이상학적 전통에 속한 철학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 사상은 독일의 관념론과 낭만주의에서 크게 발전된 인격과 언어에 대한 고찰들과 여러 면에서 대조를 이루게 된다.

존재를 상호 만남의 행위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따라서 그 실현을 위해서는 타자와 시간, 즉 인격적 역사를 필요로 하는 하나의 관계 그 자체이자 이러한 관계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실제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근본적이고도 원초적인 대화적 충동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생각은 우리에게 많은 공감과 인상을 심어 준다. 물론 대화적 사상에서의 참된 인격적 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서술적 표현이 일상적인 대화 사건의 실체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대화적 사상은 단지 추상에 불과한 서술적 표현에 그치지 보다는 존재론적인 면에서 초월적인 범주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초월적 사상은 상호 인격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초월적 사상은 이러한 인격들 사이에서 단순히 현상에 대한 그 자체의 의존성을 제거해 버릴 수 없는, 원칙과 구조들에 대한 문제로서 발전해 간다.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형태의 사상 중 그 어느 한쪽이 무시되어질 때, 위협에 빠지게 된다. 이들 간에 중재가 없이는 일반적으로 사고와 존재의 본질이나 실체는 해석학적 현상으로도 절대적으로 초월적인 것으로든 간에 결코 올바르게 표현되거나 파악될 수 없다. 해석학적-대화적 사상과 초월적-인격적 사상 사이의 궁극적인 화해가 필요하며, 이는 역사와 초월의 구조 안에서의 실제적인 만남과 부딪침의 현상을 비평적으로 제시해준다.

그러나 인격주의는 18세기의 인격적 철학과 20세기의 대화적 사상의 충동 하에서, 그리고 특히 그 자체가 성서에 의해 고무되어지면서 자의적으로 신학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대화적-인격적 해석을 통한 노력은 역사와 계시,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공동체로서의 교회, 교회와 케리그마, 성례전과 말씀 등과 같은 신학적 주제들을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통적으로는 오직 인간만이 인격을 갖는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동물 등 인간 이외의 존재가 인격이 되는 것은 이론상으로 만도 부정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윤리학자들은 이제 인격이 도덕적 지위의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인격 개념을 인간 종에게 부여되는 일종의 ‘멤버십’(membership)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몸을 가진 자는 인격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사폰티즈(Sapontzis)는 이렇게 말한다. “유아나 심한 질병-정신적 이상 등으로 고통 당하는 성인보다 정상-지능과 자아인식이 있는 개라도 인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반면 사람들은 인격으로 간주된다. 얼마나 그의 행동이 우수한가의 문제가 아니다. 개는 인격(person)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human body)이 없기 때문이다.”<sup>11)</sup>

그러나 워렌(Warren)은 인격이 일상적인 개념에서도 사폰티즈가 주장하는 것보다 인간의 몸을 소유하는 문제와 덜 밀접히 관련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서 동화에 보면 동물들이 종종 인격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들은 말하고 웃을. 입고 차를 운전하고 인간 존재와 똑같이 산다. 워렌은 이렇게 말한다. “동물이나 괴물의 형태 혹은 볼 수 있는 형태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신과 여신들도 보통 인격들로 생각된다. 많은 사람들이 유령, 천사, 다른 비물질적인 정신을 믿는다. 그들이 만지거나 볼 수 있는 인간 육체를 갖고 있지 않은 정신들이 종종 전형적인 인격들로 간주되었다. 즉 그들이 개별적인 인격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인간 존재와 지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sup>12)</sup>

또한 인격이 인간의 몸이란 생물학적, 유전적 한계를 넘고 있는 경우를 과학 공상소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sup>13)</sup> 뿐만 아니라 외계인과 인간 사이의 만남이나 교류가 공상과학 소설의 주제인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책들은 처음에는 다른 종들을 인격들로서 인정하는데 실패하다가 외계에서 온 구성원들과의 대화 혹은 의사소통을 먼저 이룬 사람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을 설득시켜 나가는 과정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격’이 되기 위해서 특정한 성, 인종, 부족 등에 속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지구에 기원한 ‘호모 사피엔스’만이 인격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sup>14)</sup>

11) S. E. Sapontzis, ‘A Critique of Personhood’, *Ethics*, 91( July 1981), p.608

12) Mary Anne Warren, *op.cit.*, p.93.

13) 외계인을 다룬 영화 ET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주인공 엘리웃이 유년기에 외계인과 만났다 작별하는 내용이 줄거리이다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14) Mary Anne Warren, *op.cit.*, p.93.

워렌은 인격성을 인간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이어야 한다는 것조차 필요 없다. 인격성은 심리학적 개념이지, 생물학적 개념은 아니다. 그것은 인격을 만드는 존재의 정신적-행동적(behavioural) 능력이지, 육체의 모양이나 염색체의 미세구조도 아니며, 또 다른 생리학적(physiological)특성이 아니다. ‘인간 존재’와 ‘인격’이란 용어들이 자주 다소 내적으로 교환되어 사용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현실적 세계에서 대부분의 인간 존재와 익숙해 있는 모든 것들은 ‘인류’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생물학적인 종 개념을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인격성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능력이 기본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는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의식적 경험능력’이라 할 수 있다. 즉 쾌와 불쾌를 느끼는 단순한 유정성에 부가하여, 경험하는 의식적 주체에게만 인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격이란 말을 처음 정의한 사람은 존 로크(John Locke)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그는 인격을 ‘의식하는 존재’라고 전제하였고, 인격이 되기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려고 하였다. 로크가 말하는 인격은 ‘생각하는 지성적인 존재’로서, 그것은 이성과 반성을 갖고 있고, 자신을 스스로 고려할 수 있고, 다른 장소와 공간에서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연속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로크의 인격 개념은 단순히 인간 개념과 동일한 것도 아니다. “인격은 법정의 용어이며, 적합한 행위와 그로 인한 이익을 지향한다. 그래서 오직 법은 지성적 행위자에게만 속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인격이 본질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게 된다.”<sup>15)</sup>

### 3. 칸트 윤리설의 인격 개념

칸트(I Kant)는 그의 도덕철학 체계 안에서 인격성에 관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언급을 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두 가지가 항상 새롭고 증가하는 경이와 두려움으로 마음을 채워서, 우리는 그것들을 더욱 자주 꾸준히 성찰하게 된다. 그것은 내 위의 반짝이는 하늘과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sup>16)</sup> 이런 면에서 칸트는 ‘안에 있는 도덕법칙’이 인격을 형성하는

15) 인격에 관한 정의는 도덕적 행위를 도덕적 지위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보는 최대주의 정의와 사고와 자아인식만을 요구하는 최소주의 정의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로크는 최대주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6) Immanuel Kant, *Critique of Reason trans* Lewis White Beck (Indianapolis Ind . Bobbs -Merrill, 1956) , p 166

것으로 보았다. 즉 인간의 도덕적 지위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 도덕성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인간의 인격만이 도덕적 의무(obligation)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인격은 도덕적 행위자가 도덕적 의무를 갖는 유일한 대상과 본체(entity)이다. 인격이 아닌 본체들은 칸트에 의하면 ‘오직 수단’으로서 상대적 가치이며 결과적으로 ‘사물’이다.<sup>17)</sup>

칸트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의 원칙을 명증할 수 없는 교리나 자연 세계의 불확실하고 변화하는 실체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서 발견한 것이다. 즉 행위의 도덕적 옳음은 행복의 산출이나 다른 선의 결과 산출에 의존하지 않는다. 행위의 도덕적 옳음은 전적으로 행위자의 ‘선의지’에 의존하여, 즉 결과를 바라지 않고 의무의 동기에서 하는 행위를 말한다.<sup>18)</sup>

칸트는 가언 명령(hypothetical imperative)과 대비되는 정언 명령(categorical imperative)의 형태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절대적 필요에 의한 행위의 법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보편법칙의 형식화’인데, “나는 나의 준칙(maxim)이 보편 법칙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 이외에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명제이다. 오직 이성적 존재만이 모순 없이 항상 동의할 수 있는 준칙에 따라 행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언명령의 형식화는 몇가지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칸트의 형식주의가 ‘결정의 원칙’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어떤 상황의 요소가 행동 준칙의 형식 안에 합법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원칙이 없다는 것이다. 즉 이성적인 존재들이 모두 어떤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모순 없이 ‘바람직하지 못한’ 준칙들을 형식적으로 보편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칸트는 인격들을 ‘목적 자체로서’(persons as ends in themselves)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정언명령의 두 번째 형식으로 ‘목적의 형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인간은 따라서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는 목적 자체로서 존재하고, 이러한 의지나 저러한 의지가 임의로 사용하는 수단으로서 뿐 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향한 또 만 이성자에 향한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애착의 대상들은 모두 단지 조건부의 가치밖에 갖지 않는다.”<sup>19)</sup>

17) Warren, *op.cit.*, p 97

18) 행위의 도덕적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선, 행복, 쾌락 등의 산출에 기초하는 목적론적인 윤리설과 대조를 이룬다

19) Kant, 『도덕형이상학의 기초』에 나오는 내용으로, 최재희 역, 『實踐理性批判』(서울: 박영사, 1997), p221

인격들을 그 자체의 목적으로 대하는 것은 인간만이 존엄성(dignity) 또는 본래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가치 보다 '숭고'한 것이며 동가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인격은 그 자체가 목적이고 자율성이 존경받아야 하는 것이지 유용성의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인격들을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들이 수용한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다루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을 단지 수단인 것처럼 다루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인격을 단지 수단으로 다루는 것은 이성적으로 동의할 수 없으며, 다른 인격들은 단순히 수단으로서 다루는 것을 허용하는 준칙은 일관성 있는 보편 법칙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정언명령의 두 가지 형식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 되고 만다.

칸트는 인격들이 목적 자체이고 도덕적 권리가 있는 도덕적 행위자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존경해야 한다고 보았다. 임혁재 교수는 칸트의 인간에 대한 존중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한마디로 목적 자체의 정형은 인격 자체에 대한 존경을 말하는 것이다. 곧 인격과 인격 간의 독단적이고 편파적인 구별의 의미에 있어서 인격의 차별을 허용하지 않고, 따라서 보편법칙의 정형에 필연적으로 추가되는 것이다. 엄격히 말해서 목적 자체의 정형은 다른 모든 이성과 감성의 통일체인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간을 존경할 것과 순전히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을 존경할 것을 명령한다.”<sup>20)</sup>

인격들을 목적 자체로 대우한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칸트는 ‘불확실한 의무’와 ‘확실한 의무’ 두가지를 말하고 있다. 이는 서로의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며, 그들의 행복과 성취를 증진시키기 위한 준칙에서 행위함을 뜻한다. 그런데 인간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다. 즉 선행에 있어서 선택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선행은 불확실한 의무(imperfect duty)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단지 수단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은 확실한 의무(perfect duty)이다. 즉 그것은 언제나 해당되는 것이다.<sup>21)</sup>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가 선행을 포함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도 자신의 행복 증진, 소질과 능력의 계발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예로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허용될 수 없듯이 우리는 자신을 죽일 수 없다. 자살은 사람의 인격적 존엄성의 거부이다. 사람만이 사물을 다스리는 처분능력을 갖고 있다. 짐승들은 이런 면에서 사물이다. 그런데 만일 인간들이 자살을 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동물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본성을 존중하지 않고 스스로를 사물로 격하시키는 것이다.

20) 임혁재, 『칸트의 도덕철학 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7), p116

21) Warren, *op.cit.*, p99



## 4. 칸트의 인격 개념에 대한 비판

칸트의 오직 이성적 존재만이 목적 자체라는 주장은 몇 가지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어떤 주석가는 칸트가 심각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것은 ‘이성의 빛’이 진실을 드러나게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명백한 것은 칸트가 이성적 존재를 그들의 도덕적 행위의 능력 때문에 유일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한 것이다. 칸트에 있어서의 도덕성은 이성적 존재가 목적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조건이다. 따라서 도덕성과 도덕성이 될 수 있는 한에서의 인간성만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 유일한 것이다.

칸트의 경우,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인간과 다른 모든 개체 사이의 명백한 형이상학적 차이라고 보았다. 인간들은 인과적 결정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지상의 존재이다. 인간들은 ‘감각 세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우리가 지각을 갖고 접근하는 감각세계는 결정론적인 인과법칙들(deterministic causal)이 만연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은 ‘지성적 세계’에서 자유로운데, 거기에는 어떤 감각적 접근(perceptual access)도 없다. 만일 인간이 자신을 감각 세계의 부분들로만 간주하면 인간의 행위들은 인과법칙에 의해 지배받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들은 도덕적 행위자로서 이성의 숙고에 의해 행동하므로, 단순한 자연적 원인으로부터 자유롭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들은 정서, 본능, 다른 비이성적 힘 등에 의해서만 동기화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자유를 의심할 수도 없고, 그것은 자연 세계 내에서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없다.<sup>22)</sup>

오늘날 많은 철학자들이 칸트의 인격 개념을 이원론적인 ‘자유의 형이상학’이라고 비판한다. ‘약한 결정론자’들은 어떤 인간 존재는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고, 모든 인간 행위는 자연적 원인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발적인 행위와 자발적이 아닌 행위 사이의 차이는 인과적인 것인가 아닌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인과적인가’에 있으며 행위가 무지, 혼란, 외적 강제 또는 심리적 강요 등에 의한 것이 아닌 비강제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자발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칸트의 인격 개념에 기초한 인간 이해는 자유에 관한 이원론적 형이상학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도덕적 지위의 적용에 있어서 그런 개념이 과연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만일 ‘도덕적 행위자’의 자유가 도덕적 행위자와 모든 다른 존재 사이

22) Warren, *op cit*, p 100

의 근본적인 형이상학적 차이의 징표가 아니라면, ‘도덕적 행위자’에 대해서만 도덕적 의무를 지우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또한 칸트의 인격성의 개념은 도덕 공동체를 축소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칸트는 완전한 도덕적 지위를 이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에게만 부여하였다. 따라서 도덕적 평등 공동체에서 동물은 물론이고, 영아나 어린이들과 심한 정신적 장애자들도 제외된다. 영아나 어린이들은 아직 일반적인 도덕 원칙에 따라 행위 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유전적 혹은 발달 이상으로 고통을 받아서 도덕적 행위자가 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도덕행위 능력의 가능성을 상실하고 있는 심한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칸트는 이런 인간 존재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동물들의 도덕적 지위에 관해 말한 것은, 이런 인간 존재들의 지위에 관한 난처한 문제들을 증가시킨다. 그는 동물들을 자기-의식적이지 못하므로 목적에 대한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인간 이외의 동물이 자기-의식적이지 않다는 전제가 우리는 그들에게 도덕적 의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한다면, 자기-의식이 없는 인간 존재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 의무를 가질 수 있는가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톰 리간(Tom Regan)은 말한다. “그같은 인간과 관련되어 말해지는 모든 것은 그들을 포함하는 우리의 의무는 합리적인 존재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이다. 따라서 내가 자기 의식이 없는 소녀를 수시간 내내 괴롭혔다고 해도 나는 아이에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sup>23)</sup>

리간은 도덕적 행위자가 아닌 인간 존재에 대해서는 도덕적 의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하는 어떤 이론도 너무 근본적이어서 도덕적 확신들과 상충한다고 보았다. 면밀히 살펴 볼 때 칸트는 아마 그같은 ‘도덕적 수동자’가 단순한 사물로서 취급받아야 한다고 믿지는 않았다. 그가 자살에 관해서 말하길, 어떤 사람이 비록 나쁜 인간일 때에도, 그의 인격안의 인간성은 존중할 가치가 있다고 하였고 이것은 그가 영·유아나 미성숙한 사람의 인격도 가치를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sup>24)</sup>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칸트가 도덕적 행위자가 아닌 인간 존재에 대해 도덕적 의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존재의 도덕적 지위는 그들의 도덕적 행위로부터만 온다고 한 것이 우리가 왜 그같은 의무를 지는가에 관해서 불명료하다는 점이다.

칸트의 이론에서는 인간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만일 어떤 일정한 도

23) Tom Regan, *The Case for Animal Righ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p 182

24) 영아 및 유아의 경우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잠재성을 보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덕적 합리성이 도덕적인 지위를 주는 경우에는, 많은 정신적으로 정상인 성인들까지도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도덕적 합리성의 형태로 칸트가 요구하는 것들은 지적인 것들로서, 교육의 일정한 형태에 해당하는 것인데, 많은 정신적으로 정상인 성인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게 되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사람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도덕적 지위가 꾸준히 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힘이 없고 누명을 쓴 사람들이 사회적 지배 계급에 대해 그들의 합리성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항상 어렵다. 그리고 강자들은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 종종 강하게 개입한다. 힘없는 사람들은 그들과 다른 사람들의 중대한 위험을 제외하고는 종종 자유롭게 말하지 못한다. 그들이 쉽게 말한다고 해도 그들이 이성적이 아니고 본능이나 감정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이해되고 만다. “여성, 노예, 가난한 사람, 소수 - 유색인종, 아동, 정신 육체적 장애자들은 그같은 대우를 경험한다. 따라서 이성적 도덕적 행위를 도덕적 권리를 갖기 위한 유일한 기반으로 만들려는, 그들의 권리를 돌려주는 것을 감행해야 하는데, 힘센 사람들은 영속적으로 그런 도전을 비판한다.”<sup>25)</sup>

칸트는 자신의 책에서 다른 인간들이 합리적 능력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귀족 계급의 성향을 갖고 있다. 초기 단편 “미와 숭고의 감정에 관한 고찰”에서, 그는 여성들은 추상적 사유가 불가능하므로, 지리·역사·수학·철학 등 정신과 복합된 주제가 아닌, 가사 기술을 기본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도덕 법칙의 실천에 대해서도, “여성들은 단지 그것들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하므로, 성적 평등(fair sex)은 법칙들을 거의 불가능하게 한다고 믿는다. 나는 그런 것 때문에 공격받지 않을 것을 희망하는데, 이런 것들은 남성에게는 거의 볼 수 없다.”<sup>26)</sup>

동시에 그는 도덕 법칙들은 ‘모든 인간의 마음 즉 미의 감정과 인간 본성의 존엄성(dignity) 안에서 사는 느낌’으로부터 온다고 하였다. 그는 여성들에게 이런 감정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지적인 열등감이 도덕적 행위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결론 내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여성의 덕은 감성에 기초한 것으로, 도덕 법칙의 이성적인 이해에 기초한 남성보다는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칸트는 여성들이 - 대부분 남성도- 원칙보다는 감성에 기초하여 행위하는 것이 행운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인간 존재는 도덕적으로 친절과 선의의 감동, 예절을 위한 섬세한 느낌을 포함하는 바람직한 감정에 끌림으로써 이성적으로 잘 행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 Warren, *op cit* p 103.

26) Kant, *Observation on the Feeling of the Beautiful and Sublime*, p 81. Warren의 책 p 103에서 재인용 함.

그런데 이런 초기 관점은 후기 저작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와 다르다. 거기서 칸트는 감정에 기초한 행위가 참된 도덕적 행위를 구성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는 또한 도덕적 의지를 도덕적 지위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면서, 도덕적 행위의 이성주의적 모델로 옮겨가고 있다. 즉 이성적인 도덕적 행위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도덕적 행위자들인 사람들조차도 충분한 도덕적 지위를 갖기 위한 기준인 권리에 있어서 확실하지 못하다.

## 5. 맺는 말

칸트 윤리설의 최대 강점은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세웠다는 점이다. “도덕은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만 적용 가능한 것이요, 그 체계와 근거는 인간이 본래적 가치 곧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다.”<sup>27)</sup> 그러나 이성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는 능력이 제한된 사람이나 자연물과 동물들은 도덕적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 해석에 있어서 자의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 서구 기독교 신학의 전통과 칸트적인 인간 이해가 서구 근대사회의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면에서 존 롤즈(John Rawls)의 ‘도덕적 개인’ 개념은 인격성의 개념적 확장을 가능케 한다. 그는 인격을 자신의 목적과 정의감을 가질 수 있는 이성적 존재인 ‘정의를 가진자’로 본다.<sup>28)</sup> 롤즈는 영아나 정신적 장애인이 도덕적 인격이 아니라는 함축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과 정의감’이 변동가능한 영역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모든 개인들이 도덕적 인격이 되기 위해서 똑같이 순화된 목표나 탁월한 정의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특성 중 어느 정도까지만 소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롤즈는 영, 유아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한다.

“도덕적 인격을 정의하는 최소한의 요구는 그것의 실현이 아니라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는 그것이 발달되었든 또는 안왔든, 정의의 원칙의 충분한 보호를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아와 아동은 기본적인 권리(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양육 받는)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sup>29)</sup>

27) 김기순 외, 『철학의 물음과 사색』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4), p 283

28)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 12.

29) *Ibid* p 509.

자신의 목적과 정의감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성이 도덕적 인격성을 위해 충분하다는 가정은 롤즈가 정상적인 유아와 젊은 아이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가능케 한다. 또한 수정된 혹은 수정되지 않은 인간의 난자(human ova)는 잠재력을 갖고 있고 있으므로, 인격성이 부여될 수 있다.

그러나 잠재적 가능성에 기초한 인격 개념은 개인적인 목적과 정의감을 발전시킬 가능성 조차 결여한 도덕적 수동자와 같은 인간 존재의 인격성은 구해 낼 수가 없다. 실제로 이런 개인들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롤즈는 인격성이 도덕적 권리를 갖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주장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면서, 그것은 충분 조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인격성 개념에 기초할 때 오는 한계와 문제점을 고려할 때, 생명의 개념에 기초한 도덕적인 지위 부여는 좀더 폭넓은 범위를 수용하게 한다. 예를 들어 리간 등은 ‘생명의 주체인 것’ (being a subject-of-a-life)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경우 칸트 윤리설의 ‘이성적 도덕적 행위’의 역할을 하는 것은 리간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믿음과 욕망, 지각, 기억, 그들 자신의 미래를 포함하는 미래에 대한 감각 ; 쾌락과 고통의 느낌을 수반하는 정서적인 생명; 선호, 복지에 대한 관심; 욕망과 목표를 추구하는 행동의 능력; 시간에 대한 정신생리학적 정체성; 그들 경험상의 생명이 그들에게 좋은가 하는 면에서의 개별적 복지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sup>30)</sup>

도덕적 지위를 인격성에서 생명의 주체로 확대할 경우에, 인격성 중심의 개념 정의가 갖고 있는 전제주의적 종 차별주의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윤리적 가치관이 요구하는 의무와 상황을 결정하는 제 요인들이 요구하는 법칙을 공정하게 판단하여 행동하는 책임적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면에서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도덕적 책임과 지위와 관련하여 ‘인격성’ 개념은 설득력 있는 기준이 되고 있지만,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윤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지평의 확대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30) Tom Regan, *op.cit.*, p 243

## Bibliography

- Hare, R.M, *Essays on Bioethics*, Claren Press, 1993
- Kant, Immanuel,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trans. Lewis White Beck Bobbs-Merrill, 1956
- \_\_\_\_\_ *Dreams of a Spirit-Seer*, Illustrated by Dreams of Metaphysics, trans. Emanuel F. Goerwitz, Swan Sonnenschein, 1990
- \_\_\_\_\_ *Lectures on Ethics*, trans Louis Infield, Harper & Row, 1963
- \_\_\_\_\_ *Metaphysics of Morals*, trans. Mary Grego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 \_\_\_\_\_ *The Moral Law: Kant's Groundwork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trans H. J. Paton, Hutchinson, 1948
- \_\_\_\_\_ *Observations on the Feeling of the Beautiful and the Sublime*, trans. John T. Goldwait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0
- Regan, Tom, *The Case for Animal Right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 Singer, Peter, *Animal Liberation: A New Ethic for Our Treatment of Animals*, Avon Books, 1975
- \_\_\_\_\_ *Practical Eth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Sylvan, Richard, Bennett David, *The Greening of Ethics*, Arizona Press, 1994
- Warren, Mary Anne, *Moral Status*, Claren Press, 1997

**Abstract****The conceptual relationship between Personhood  
and Moral Status**

Jang-hyung Lee

Personhood is very difficult to define, but there is a strong conceptual link between being a person and having full moral status. Kant identifies moral agency as the essence of personhood, but Tom Regan's criterion includes only the mental capacities that found in all mammals.

In Kant theory, the moral agency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having full and equal basic moral rights. So the theory excludes many sentient human beings. The 'moral law within' is what, in his view, makes as persons. It also makes as persons the only things in the universe that can have moral worth.

Treating persons as ends in themselves requires that we treat their ends as important. For Kant, the moral agency of persons is the evidence of a metaphysical difference between persons and all other entities. But most philosophers reject this dualistic metaphysics of freedom.

We need expansions of criteria in the identification of personhood to resolve the modern ethical problems.

여 백